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 길로 가진다 성자가 생각해야 성자의 길로 가진다

본 문 이사야 55장 6-9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말씀에는 성자 주님을 증거하느라 선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성자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핵심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로 가지고, 성자 주님이 생각하시면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이 가시는 길로 가진다.” 입니다. 이에 대해 주일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전에 선생이 10분만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29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일곱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이 성자 주님의 생각인 줄 알고 내 생각대로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났습니다. ‘주님 생각대로 했는데 왜 손해 갔지?’ 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 이와 같이 주님 생각인 줄 알고 행했는데, 알고 보니 내 생각으로 한 때가 있습니다. 고로 자기 생각을 비우고 기도하여 확실하게 성자 주님의 생각인지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여 성자 주님의 생각을 확실하게 받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겪으니까 가다가 점점 내 생각대로 해졌습니다. 시작은 주님 생각대로 하다가 과정 중에 일부는 내 생각대로 하고, 일부는 주님 생각대로 했습니다. 결국 짬뽕이 되어, 하는 일이 안 되고 손해를 봤습니다.

→ 이와 같이 기도하여 확실하게 주님 생각을 받고 시작했다가도 가다가 점점 자기 생각대로 일부 행하게 됩니다. 모두 이를 깨닫고, 과정 중에 냉철히 검토하면서 오직 주님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신부가 신랑 되신 주님과 살면서 신랑 생각대로 안 하면, 신랑은 이를 최고로 싫어하여 자동적으로 멀어집니다. 그러니 신부가 어떤 해를 당해도 그대로 두고, 해를 당한 후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심하여 다시는 자기 생각대로 안 하겠다고 하고 주님 생각대로 하면, 그제야 다시 신부로 하늘같이 대해 주십니다.

네 번째, 주님 생각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해도 이 보다는 낫게 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기 생각이 더 좋게 보여도 주님 생각대로 절대 따라가야 됩니다. 알고 보니 그같이 함으로 인해 문제도 안 생기고, 얻은 후에도 뺏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돼도 주님이 보실 때 안 되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마음을 비우고 성자 주님께 자기 생각을 맡기면 주님은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는 예정대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의 뜻대로 하게 해 드렸기에 그 뜻대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종교의 대(大)지도자들과 자기가 개척하여 한 교파를 만든 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주님의 생각대로 하다가 점점 자기 생각대로 했기에 망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자 주님이 생각하게 하여 자기는 그 생각대로 따라 했어야 되는데, 그같

이 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자들은 육의 세계에서는 잘됐다 할지 몰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대(大)실패 했습니다.

일곱 번째, 자기가 생각하면, 마치 자기가 차를 운전하니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듯 자기 길로 가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운전하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자기는 뒤에서 애인같이 주님과 이야기하며 따라가면,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시며 신비하고 기묘하고 오묘하게 행하십니다. 어떤 일은 다 해 놓고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도 못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해 주신 것을 이야기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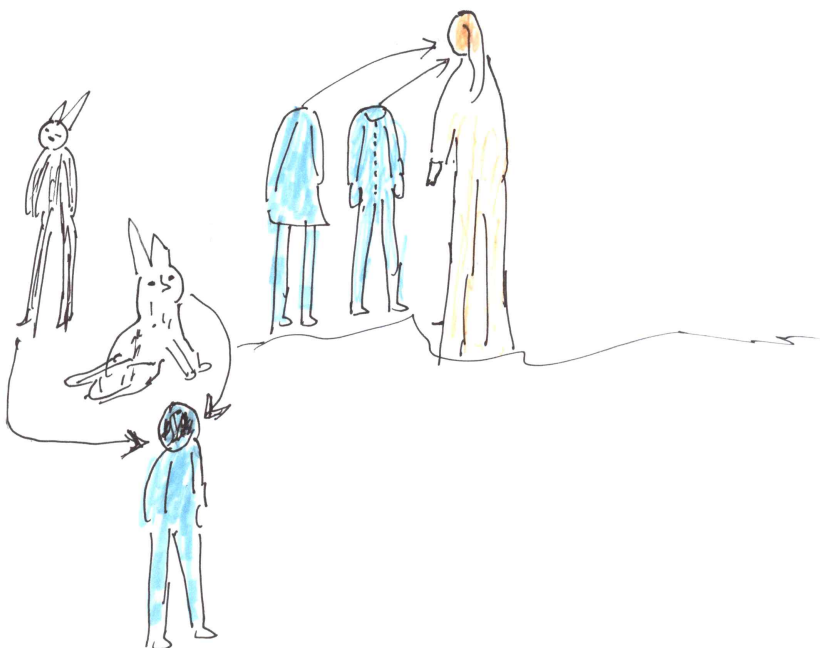
지금까지 일곱 가지만 말씀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겠습니다.

(* 여덟 번째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전하겠습니다.) <영상1>

성자 주님이 머리가 되어 생각하면...

첫째, 절대 사탄이 개입을 못 하니 온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사탄 불가침입니다. 전능자의 생각은 너무 높아서 사탄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둘째, 주님이 생각한 일이라서 주님이 꼭 끝까지 함께하십니다.

셋째, 성자 주님이 생각하게 했다고 “너는 내 육이다. 내 손발이다. 나는 네 머리다.” 하면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신부만이 신랑이 생각하게 한다.” 하시며 수시로 육적인 선물과 영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영상1 끝>

이는 선생이 50년 동안 신랑 되신 성자 주님을 모시며 살면서 겪은 것입니다. 이 여덟 가지를 꼭 증거하고 행하면서 외쳐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21개가 더 있는데, 오늘은 핵심만 말씀했습니다.. 나머지는 성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니, 정말 잘 듣기 바랍니다. 성자 주님의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이 구시대의 만 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큼니다.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영상2>

<성자의 말씀>

너희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 성자는 전능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는 절대자 신이다. 너희는 시대를 좇아 전능하신 삼위가 마지막으로 인간을 최고로 대하는 역사에 왔다. 내가 보낸 구원자의 말을 믿고, 내 말을 믿고, 나를 사랑하며, 나 성자 본체를 안 너희들은 그 행위대로 나의 신부가 됐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신부는 신랑과 한 몸이다.



신부'는 왼손 주먹 쥐고,

'신랑'은 오른손 손바닥 펴서,

'한 몸이다' 할 때

오른손이 왼손을 천다.)

한 지체에 머리가 둘이면 기형이다. 몸은 둘이지만, 머리는 그리스도 성자 하나여야 한다. <영상3 끝>



(‘머리가 둘’ :
양손 주먹 쥐고 손을 든다.)



(‘머리는 성자 하나여야 한다.’ :
한 손 주먹 쥐고 든다)



신부는 신랑과 한 몸이라는 것과, 한 지체에 머리가 둘이면 기형이라
는 것을 이론으로만 알지 말아라. 진실된 신부는 신랑인 나 성자에게 생
각을 맡기고, 내가 구상해 주면 그대로 행한다. 행할 때도 제 생각으로 할
까 걱정하며 결눈질하고 오직 내게 마음과 생각을 맞춰 가면서 한다. 그
래야 작품을 만들어도 작품이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되고, 어
떤 일을 할 때 잘되고,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자가
되고, 혼도 영도 변화되어 휴거되고, 땅에서도 육이 휴거되어 살아간다.

나 성자와 영원히 한 몸 되어 내가 보낸 자와 함께 살 너희들이다. 그
런데 지금 나 성자의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미래에도 너희 영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고로 함께 살 수가 없다. 신부는 신랑의 몸이다. 세상 육적
인 부부와 애인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너와 나의 입장을 생각하여라. 너
희는 전능자 나 성자의 신부다. 정말 내 몸이면, 나 성자가 생각하도록 항
상 내게 맡기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실수해서 문제가 생겼어도, 너희를 축복해 주려고 계획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구상하고 모든 것을 은밀히 쫓는다. 신랑인 나는
그같이 하는데, 신부인 너희가 자기 생각대로 하여 제 길로 가면 내가 어

떻게 보겠느냐. 어떻게 그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그와 큰일을 할 수 있겠느냐.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나이를 먹어 신앙이 커서 철들면 자기 생각 않겠지.’ 기대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 자기가 크니 더 심하게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길로 간다.



‘시대 말씀을 차원 높여 주고, 성령의 불을 주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성자에게 맡기겠지.’ 기대하고 주일과 수요일과 새벽에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성령집회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줬더니, 그 힘을 받아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육성의 생각으로 산다. <영상4 끝>



지금 저마다 자기 영을 마지막으로 단장시키는 이때, 최고 암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다. “꼭 영 휴거는 돼야 해! 주님의 생각과 일체 돼야

해!” 하면서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나 성자와 일체 되어 꼭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생각은 사망길이요, 나 성자의 생각은 생명길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다시 말하지 않아도 평생 내 말을 지키기 바란다. 그래야 나 성자가 생각하여 내 분체를 통해 계시해 주어, 내 생각을 너희에게 보내어 실천하게 한다.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난이 닥치나, 핍박을 받으나 잘되고 형통한다.

나의 분체인 너희 선생도 섭리 역사를 펴 온 지난 34년 동안 내게 맡겨 내 생각대로 했기에 역사를 이같이 펴 온 것이다. 고로 오늘날까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넓은 길로 안 가고, 사랑을 지켜 나와 이별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다.

섭리사를 보라. 이 안에서도 심정 안 맞아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도, 나름대로 내게 생각을 맡기고 살기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큰 종교 지도자들이나, 섭리인들이나 자기 생각대로 한 자들은 모두 넓은 길로 갔다. 자기 길로 간 자들의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육계에서는 아는 자가 없다. 내가 그 비밀을 말해 주어 나의 계시를 받은 자나 안다. 이 육계의 생각과 저 영계의 생각은 다르다.

나의 말을 또 들어보자. / 어렸을 때와 성장했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 성장한 후에는 한 번 생각을 잘못하면 엄청난 해를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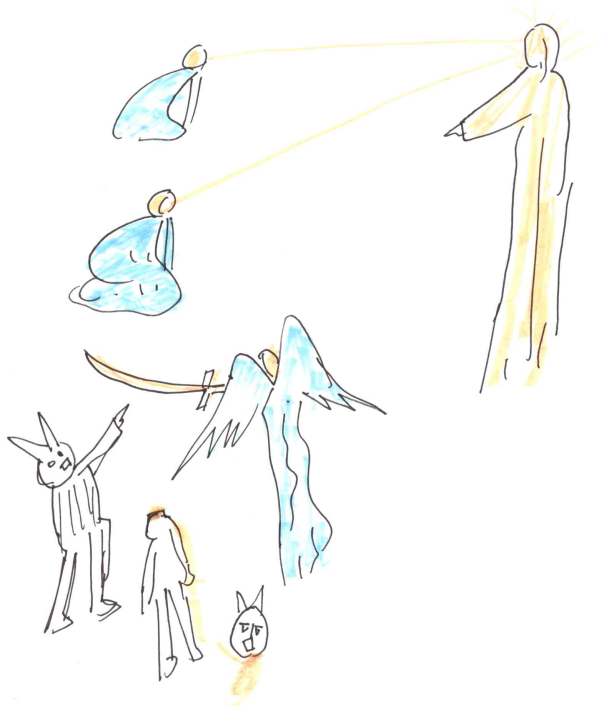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어렸을 때는 제 생각대로 해도 마치 소꿉장난을 하다가 틀리면 그냥 발로 뭉개고 다시 지어도 되듯이 작은 일이라 별것 아니다. 그러나 커서는 실제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사업을 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간다. 고로 생각을 잘못하고 실패하면 잘못된 것을 헐고 다시 해야 되니, 물질과 시간의 큰 손해를 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고통은 지옥과 같다.



사람이 클수록 큰일을 하게 된다. 영원히 좌우되는 일까지 한다. 고로 어떤 일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꼭 나 성자가 생각하게 해야 된다.

<영상5 끝>



지도자는 더욱 근신해야 된다. 자기 생각대로 가면, 자기뿐 아니라 따르는 자들에게까지 문제가 발생한다. 고로 더욱 내게 맡기고 의논하며 해야 된다. 나 성자 그리스도는 머리이니, 머리가 생각하게 하여라. 지체 같은 너희가 생각하고 하면, 기껏해야 감각, 예감, 느낌 정도로 행한다. 먼저 기도하여 나 성자의 생각을 받도록 하고, 내게 맡겨 내가 여건을 트는 대로 하는 것이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선생이 기도하며 생각을 내게 맡겼기에 나를 상징한 형상이 새겨진 성자바위를 발견하게 한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면 줄 것도 안 준다. 생각을 맡기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며 사랑의 행실이다.

‘사랑 술 (구 : 정이품 소나무)’ 을 보아라. 그 소나무 하나를 옮길 때도 선생이 몇 년씩 기도해서 받았다. 사랑해서 나 성자가 주었고, 선생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맡김으로 내가 주었으니 ‘사랑 술’ 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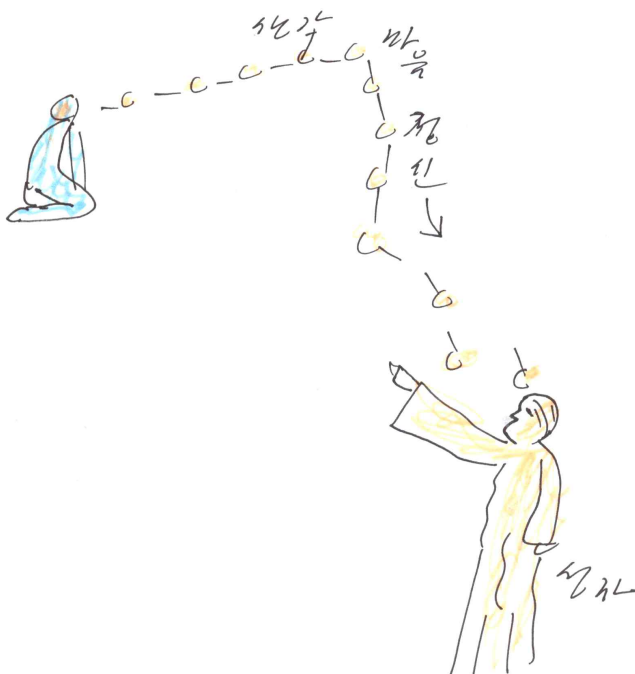
월명동 산을 살 때도 돈만 준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3년, 5년, 8년씩 기도하여 사게 되었다. 장수바위(거북바위)에서, 동그래산에서, 전망대에서 기도했다. 내게 생각을 맡기니 나의 생각과 구상으로 기적적으로 산을 사도록 도왔다. 앞산, 동그래산, 뒷산(불탄산), 가는골 산, 조산, 청기와집 뒷산(밤나무 산), 앞썰골 산, 이 중에 하나만 못 샀어도 자연성전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다. <끝>

너희도 내 분체를 통해서 본을 보인 대로 행해야 된다. 나 성자의 생각으로 하면 역사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아느냐. 나는 빠른 구름을 타고 다닌다. 나 성자 본체와 나의 분체와 함께 가야 생명길이며, 고생돼도 통하는 길이다.

자기 생각을 비우려면 깊은 기도를 하여라. 급하다고 그냥 하면 우선 너희 눈에 보이니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하게 되고, 우선 너희 몸에 닿으니 몸에 느끼는 대로 하게 된다. ('우선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하게 된다.' : 손으로 방향을 제시하면서 눈으로 손끝을 보면서 방향을 돌린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기도' 는 너희 마음 · 정신 · 생각 · 혼 · 영이 나를 찾아오는 역할을 한다. (다 같이 말해 볼까요? 자막 한 번 더) <영상7 끝>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묻느냐. “내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사탄이 듣고 “아! 생각을 맡기니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한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항상 자기 길로 가진다.

새벽부터 내게 맡기고, 상황마다 내게 맡기고, 누구에게도 맡기지 말아라. 이것이 나의 신부로서 최우선권으로 할 일이다. 내게 생각을 맡기면, 마음도 몸도 내게 맡기는 자다.

내게 생각을 맡기고 걱정하지 말아라. 상황이 걱정돼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끝까지 나 성자를 불러라. 교역자들도 지도자들도 누구든지 그리하

여라. 내 일인데 나 성자가 생각해야지, 왜 네가 생각하느냐. 나의 몸 된 자는 내게 맡기고 내 생각대로 한다. 나와 일체 된 자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 따로, 몸 따로 사는 자는 자기가 생각하고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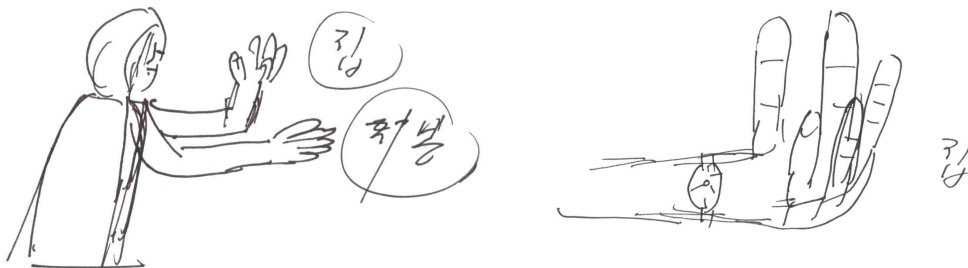
자기가 생각할 때 사탄이 그 생각에 개입하여 사탄과 일체 된다. (자기 머리에 손댄다.) 이때 사탄은 사탄의 뜻대로 감동을 주어 사탄의 육이 되어 행하게 한다. 나 성자가 생각하게 하면, 사탄은 거기에 아예 미치지 못하니 ‘사탄 불가침’ 이다. (‘사탄 불가침’ : 손으로 사람 없는 옆을 가리킨다)



내 생각대로 맡기면 어느 때는 내가 너희 육을 쓰고 행하고, 어느 때는 내가 쓰는 자들을 통해 합당하고 은밀하게 행하고, 어느 때는 내가 직접 행하고, 어느 때는 천사를 통해 만물을 통해 행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올해 2012년은 ‘마지막 전환의 때’ 다. 마지막까지 나 성자가 생각하게 해야 된다. / 올해 마지막인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자는 마치 지붕을 덮지 못한 건물같이 될 것이다.



(‘집’ : 왼손 다섯 손가락 전체를 꺾어서 세워 집 모양을 만든다.)

(‘지붕’ : 오른손을 펴서 뚜껑을 만들어 표현한다)

연말 때 인간 쥐들에게 생명을 뺏기지 말고 속지 말아라. 인사탄과 영사탄의 땀에 넘어가지 말아라.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온다.

너희 옆에도, 교회에도 인사가탄이 있다. 그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도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 나 성자가 사명자를 통해 다 흑암에 던진다. 돌
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도 안 하니, 행한 대로 갚아 줄 수밖에 없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 너희를 유익하게 해 준다고 하며 꺾는다. 모두 속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로 모두 올해 승리하고 이겨라!

평강을 빈다.

너희 생각이 되는 사랑하는 성자니라. 샬롬! <영상8 끝>